

순천시, '저출산 대응 강화'... 관련 예산 24% 증액

산후조리비, 모든 산모에 100만원 25회 난임 시술비·방학 중 급식비 도내 최초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소아응급의료체계 확립 본격 추진

순천시가 어려워진 민생 안정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내년도 출생, 양육, 돌봄 지원을 확대한다.

22일 순천시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결혼을 어렵게 한 주요 원인은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이 5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는 이를 반영해 임신과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출산·양육·돌봄 예산을 2024년 대비 24%(37억원) 증액했다.

내년 저출생 극복 정책으로는 △산후 조리비용 지원 금액 상향 △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방학 중 급식비 지원 △외국인 아동에 대해 연령별 보육료 50% 지원 등이 추진된다.

먼저 산후조리비용은 중전 첫째아 80만원, 둘째아 100만원 지원을 출생 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의 산모에게 100만원씩 지원한다.

난임 시술비 지원은 평생 동안 여성 1인당 25회 지원하던 것을 출산당 25회로

확대하고, 연령기준을 폐지해 모든 여성이 동일하게 회당 30만원에서 1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다함께돌봄센터(5개소)와 순천형 초등돌봄기관(3개소)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방학 기간 급식비 1식 9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전남도 내에서는 최초로 순천시에 체류지 등록을 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에게도 연령별 보육료의 50%를 지원, 외국인 가정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다.

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순천형 응급의료 체계 확립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달빛 어린이 병원을 내년에도 지속 운영, 24시간 소아응급실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병원 설립과 연계해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와 소아재활센터를 설치하고 지역 필수 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임신부터 출생, 양육, 초등돌봄까지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감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양육, 돌봄 지원 확대가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가 촉진되는 불씨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카드형 지역상품권 15% 할인 추진 여수시, 연내 27억 등 127억 발행

탄핵정국으로 인한 지역 소비 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여수시가 카드형 여수사랑 상품권 15% 특별할인 판매에 나섰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예비비 4억 5000만원을 긴급 투입해 총 127억원의 상품권 발행을 결정했다. 연내 27억원을 판매하고, 내년 1월2일 추가로 1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15% 할인 판매가 예정된 200억원의 남은 물량도 2025년 상반기 조기 추진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복안이다.

15% 특별할인 1차 구매는 23일, 2차 구매는 내년 1월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계획된 발행량이 완판되면 종료된다. 다만, 설 명절맞이 특별할인은 발행량 소진 시 10% 할인 판매로 전환된다.

시는 이번 상품권 할인 판매를 통해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시민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상품권 특별할인은 내수 진작과 소비 촉진을 통한 민생 조기 안정에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불가 상생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시민들을 위해 상품권 발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화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유통되며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소상공인 매출에 기여하고 있다.

앞서 여수시는 설과 추석 명절, 하계 휴가철 등에도 총 280억원을 발행(설 명절 70억원, 하계휴가철 150억원, 추석 명절 60억원),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실시한 15% 특별할인은 판매 개시 이후 11시간 만에 완판되기도 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 남열 해맞이 행사 1월1일, 해수욕장·전망대 일원

고흥군이 다가오는 새해 첫날 국내 대표 해맞이 명소인 남열해돋이해수욕장과 발사전망대 일원에서 '금빛 새벽, 빛나는 시작'이라는 주제로 해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5년 1월1일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일출 예정 시간은 오전 7시 36분이다.

이날 남열해돋이해수욕장에는 2025년 소원을 기원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먼저 행사장 방문객들이 참여하는 소원 계첩대에 소망 메시지를 부착하며 새해 소망을 빌 수 있고, 고흥군 전속예술단의 신명 나는 대북 공연과 2025 새해를 주제로 한 1500대 규모의 드론쇼와 불꽃쇼가 펼쳐져 잊지 못할 새벽의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스페셜 공연인 신년 운세 '타올라라 퍼포먼스'는 타오르는 불꽃을 통해 부정한 기운을 태우고 새해를 뜨겁게 맞이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번 행사의 백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신년 분위기에 걸맞은 록 밴드 공연도 마련돼 방문객들이 신나는 음악과 함께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흥=심정우 기자



'스마트 사육시설' 꿀벌 소실 극복 보성군, '양봉 산물 안정적 생산'

보성군은 양봉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추진한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꿀벌 공급 체계를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국 양봉 산업은 겨울철 이상기온으로 인한 월동기 꿀벌 소실, 벌 구입비 증가, 꿀 생산량 감소 등으로 농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꿀벌을 화분매개 곤충으로 이용하는 보성군 딸기, 토마토, 오이 등 시설원에 농가들은 화분매개 벌 구입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보성군은 환파, 폭설 등 이상기상 조기 감지를 통해 월동기 꿀벌을 보호하고 디지털 센서 및 관련 장비를 이용한 스마트 사육환경 관리 기술을 보급해 화분매개용 꿀벌 전문 생산 농가를 육성하는 '꿀벌 및 화분 매개 벌 스마트 사육시설 지원사업'에 나섰다.

군은 우선적으로 양봉 사육 농가 13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 스마트 벌통 65대, 비가림시설 5개소, 기자재 창고 2개소, 저온저장고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양봉 사양 시설 개선 및 스마트 사육시설 구축을 지원했다.

또 채밀대차, 자동 채밀기, 자동 탈봉기 등 노동력 절감 기계 장비 10종 25대와 소조광, 벌통, 자동사양기 등 소모성 기자재를 농가에 지원해 양봉 사육에 대한 노동력 절감 및 생산력 향상을 도왔다.

특히 '스마트 벌통'은 봉군 내부 환경(온·습도,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애플리케이션으로 확인하고, 보온 시설 및 환기팬을 통해 벌통 각각의 내부 환경을 조절해 봉군을 관리하는 기기로, 꿀벌 활동량을 모니터링함은 물론 수분 및 먹이 관리 제어를 통해 월동기뿐만 아니라 일반 사양 시기에도 꿀벌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보성군은 양봉 농가들의 안정적인 꿀벌 생산을 위해 2025년에도 국비를 추가 확보, '꿀벌 및 화분매개벌 스마트 사육 시설 지원사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보성=양종수 기자



여수시 문수동 부영1단지 공사장 펜스와 연등천변 미평교에서 좌수영로로 이어지는 이면 도로 사이의 공한지에 주민들이 마을 꽃밭을 조성하고 있다. 여수시 제공

여수시 문수동, 아파트 재건축 공한지에 꽃밭 조성

여수시 문수동이 아파트 재건축 예정지의 인근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관리되지 않았던 공한지에 마을 꽃밭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22일 여수시에 따르면 해당 공한지는 문수동 부영1단지 공사장 펜스와 연등천변 미평교에서 좌수영로로 이어지는 이

면 도로 사이의 땅으로, 문수주택단지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차량이 많은 골목이기도 하다.

하지만 잡목으로 인한 차량 통행 불편과 쓰레기 불법투기 등이 빈번히 발생해 주민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문수동은 시 담당 부서와 협의해

수목을 정리하고 묵혀진 쓰레기를 모두 처리한 후 통장 및 마을 주민과 꽃양배추, 팬지 등의 겨울꽃을 심었다.

김은주 문수동장은 "다툼과 민원의 원인이었던 공한지가 주민들과 함께 조성한 꽃밭이 되어 마을에도 생기가 넘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과 거주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 '정책기획 공모' 도심 활성화 등 5건 선정

은상 1·동상 2·장려상 2 "검토 통해 시정 점검"

순천시는 최근 시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공무원 정책기획 공모전' 최종 심사를 통해 총 5건의 정책 제안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오천그린광장-원도심 구간 생태축 조성'과 '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직원의 시각에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 제안을 받아 시정에 접목하기 위해 기획됐다.

시는 지난달 공모를 진행해 총 34건의 정책 제안을 접수,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를 진행하고 5건의 제안을 선별했다. 이어 2차 공모제안 심사위원회에서는 PT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은상 1팀, 동상 2팀, 장려상 2팀을 선정

했다.

먼저 은상(1팀)은 △순천형 빅딜(Big Dig) 도심도 터널 및 하이라인 파크, 동상(2팀)은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2050 순천형 원도심 르네상스" △신청사 부지에서 발생한 유출지하수를 시민광장 활성화 및 옥천 하천유지용수로 활용, 장려상(2팀)은 △'삼산(와룡산·봉화산·용산)&이수(옥천·동천) 아고라벚길' 조성 제안 △밤(夜) 양(陽) 경(更) 프로젝트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은상 수상작은 강변 고가도로를 활용해 도심도 터널과 하이라인 파크(High Line Park)를 조성하는 제안으로, 시가 고민하고 있는 생태축 조성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동상을 수상한 '2050 순천형 원도심 르네상스' 제안은 강변로 고가에서 동

천을 바라볼 수 있는 동천그린워크 조성, 동천웹툰극장 등 다양한 콘텐츠 활용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신청사 부지 유출지하수를 시민광장 활성화 및 옥천 하천유지용수로 활용'은 시민광장과 연계한 인공수로, 물놀이장 조성 등을 제안해 실행 가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을 수상한 '삼산&이수 아고라벚길 조성'은 한국정원 부유성 복원은 현실성 있는 제안으로 눈길을 끌었으며 '밤(夜)양(陽)경(更) 프로젝트'는 시 미래전략사업과 연계한 참신한 아이디어 제시가 호평을 받았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기획 공모전은 시 미래비전과 연계한 다양성과 참신함이 빛나는 기획의 장이었다"며 "제안과 관련된 연관부서 검토를 통해 시정에 접목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